

웨강아오대만구 발전현황 및 베이밸리 정책 연계 - 충남도 · 광둥성 협력방안 모색

홍 원 표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wonpio@cni.re.kr

전 춘 복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quanchfu@cni.re.kr

이 중국의 대표적 초광역협력모델인 웨강아오대만구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충남·경기의 베이밸리 초광역협력과의 교류·협력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목적 및 방법(베이밸리 소개 포함)
2. 웨강아오대만구 현황과 개발계획
3.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과 베이밸리 개발계획의 비교
4. 광둥성과 충남도 간 협력 강화 방안

요약

-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은 충남경기의 베이밸리 초광역계획의 참고 사례일 뿐 아니라 충남도와 광둥성이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기도 함
- 웨강아오대만구 계획과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①초광역개발계획, ②발달한 경제 지역 간 개발계획, ③도시 간 기능적 통합 우선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④지역적 규모, ⑤국가전략상의 지위, ⑥추진 방향에서 상이점을 보이고 있음
- 베이밸리 관련 교류·협력 대상은 웨강아오대만구보다는 광둥성의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 선전 개발구 등이 규모나 성격 면에서 보다 적합하며 각 개발구마다 국토 위상, 산업 위상, 관리 체계 등 측면의 특징이 상이하므로 교류·협력의 목적에 맞게 선정해야 함
- 광둥성과 충남도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①베이밸리 프로젝트를 연결고리로 한 교류 기회의 마련, ②적절한 상호교류 거점의 지정, ③다양한 네트워크의 연결 등을 제안함

01

연구목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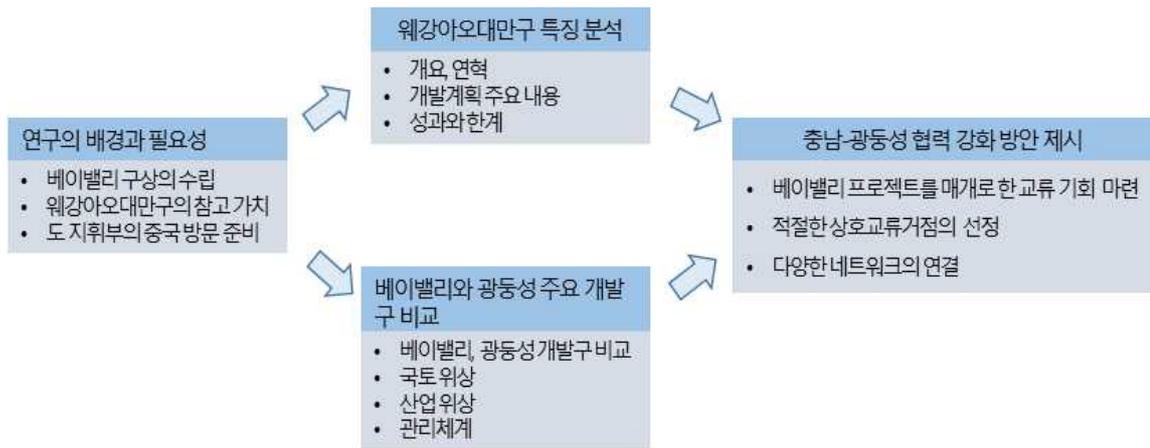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광둥성은 혁신발전 전략과 도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으며, 특히 웨강아오대만구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
- 특히 광둥성, 홍콩, 마카오 도시간 협력 강화로 인력, 자본정보, 기술 등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인재유치, 통관 간소화,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 예정
- 충청도는 경기도와 아산만권 도시 간 협력뿐 아니라, 이 지역을 한국의 최대경제권으로 개발하려는 ‘베이벨리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음
- 본 연구는 충청도는 초광역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웨강아오대만구의 개발계획을 연구하여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광둥성은 충청도의 주요 교류협력 지역으로서 웨강아오대만구 프로젝트와 베이벨리 프로젝트를 교류·협력 강화의 접점으로 삼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 본 과제의 연구범위는 중국의 웨강아오대만구이며, 구체적으로 광둥성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연구 대상으로 함

-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보조적으로 추가함
-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3. 베이밸리 프로젝트 소개

1) 추진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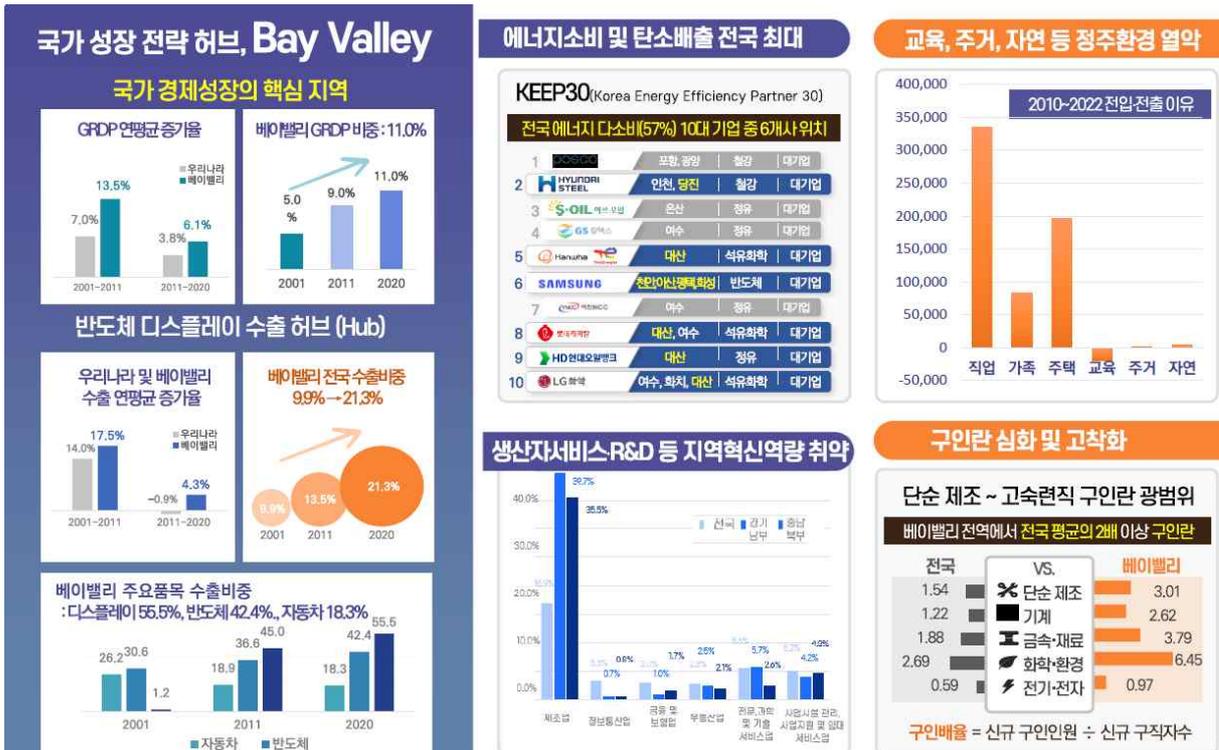
- (글로벌)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미·중신냉전 등 대전환 시기에 아시아 메가 리전의 중심지로 도약
- (국가적) 저성장, 기간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지역적) 청년·숙련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경쟁력 있는 정주공간 조성

2) 프로젝트 범위와 대상

- (시간적) 2023~2050년 장기 계획
- (공간적) 충남, 경기를 포함한 전국 지역, 물리 계획은 아산만권(경기도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충남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 (내용적)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비전, 목표, 전략, 정책

3) 현황과 여건

- 국가성장전략 허브, 전국 수출 견인
- 에너지다소비 업종 집중, 지역혁신 역량 취약
- 정주환경 열악, 구인난 심화 및 고착화 우려



4) 비전과 목표



* 메가리전(Mega-Region): 초국경적인 경제단위로 소수의 거대 경제집적지(5,000만명~1억명 규모)
 메가시티(Megacity): UN에 The World's Cities in 2018를 통해 도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로 분류

5) 10대 핵심 프로젝트

정책과제 추진단계 • 단기 : 민선8기 내 • 중기 : 2027~2030년 • 장기 : 2031~2050년	정책과제 추진방안 • R&D예타 • 공모 • 제도개선 • 정부 역제안 • 민자유치
---	---

구분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사업	공통/단독	예산(억원)	추진단계			추진방안
					단기	중기	장기	
1 신성장동력 창출	1-1 베이벨리 메가클러스터(BMC) 조성	1-1-1 베이벨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공동	6,000.0	●	●	●	예타
		1-1-2 Economic Security Sector 조성	단독	5,717.0		●	●	역제안
	1-2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1-2-1 반도체·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	단독	5,850.0	●	●	●	예타
		1-2-2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단독	20,800.0	●	●	●	예타
	1-3 자·산·학·연 R&D혁신생태계 구축	1-3-1 자·산·학·연 R&D혁신 역량강화	단독	500.0	●	●	●	자체
	1-4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전진기지 조성	1-4-1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공동	222.4	●	●	●	자체
1-4-2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공동	490.0	●	●	●	자체	
2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역할수행	2-1 지속가능한 외국인직접투자기반 조성	2-1-1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단독	76,000.0		●	●	민자
		2-1-2 베이벨리 개발청 설립	공동	150.0	●			자체
	2-2 글로벌 우수인력유치기반구축	2-2-1 선진 이민제도기반 조성	단독	5.0	●			역제안
		2-2-2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	단독	4,506.0	●	●	●	민자
	2-3 환황해 직교류교통망 구축	2-3-1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 구상	단독	미정			●	역제안
		2-3-2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조성(서산공항)	단독	3,600.0			●	예타
	2-3-3 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공동	26,310.5	●	●	●	예타	
3 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	3-1 베이벨리 K-SPACE 조성	3-1-1 K-SPACE 개발	단독	33,000.0		●	●	자체
		3-1-2 베이벨리 순환고속도로 건설	단독	53,303.0			●	역제안
	3-2 베이벨리 초광역교통망 구축	3-2-2 베이벨리 순환철도 건설	공동	66,067.0			●	예타
		3-3-1 K-골드코스트 조성	공동	5,800.0	●	●		자체
	3-3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확충	3-3-2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공동	550.0	●	●		자체
		3-3-3 베이벨리 생활지원 인프라 확충	단독	5,580.0	●	●	●	예타

6) 소요 예산 및 추진체계

• 사업연도를 단기(2024년~2026년), 중기(2027년~2030년), 장기(2031년 이후)로 구분할 경우

단기	9,182.9억원	중기	91,943.0억원	장기	227,657.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사업	계	단기	중기	장기
1 신성장동력 창출	1-1 베이벨리 메가클러스터(BMC) 조성	1-1-1 베이벨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6,640.0	913.3	3,226.7	2,500.0
		1-1-2 Economic Security Sector 조성	5,717.0	-	3,430.2	2,286.8
	1-2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1-2-1 반도체·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	12,400.0	2,182.9	7,531.4	2,685.7
		1-2-2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20,600.0	1,020.0	11,437.1	8,142.9
	1-3 자·산·학·연 R&D혁신생태계 구축	1-3-1 자·산·학·연 R&D혁신 역량강화	500.0	200.0	300.0	-
		1-4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전진기지 조성	1-4-1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172.4	67.5	89.9
	1-4-2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440.0	30.0	60.0	350.0	
2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역할수행	2-1 지속가능한 외국인직접투자기반 조성	2-1-1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76,000.0	1,000.0	28,125.0	46,875.0
		2-1-2 베이벨리 개발청 설립	48.0	48.0	-	-
	2-2 글로벌 우수인력유치기반구축	2-2-1 선진 이민제도기반 조성	3.0	3.0	-	-
		2-2-2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	486.0	146.0	196.0	144.0
	2-3 환황해 직교류교통망 구축	2-3-1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 구상	미정	-	-	-
		2-3-2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조성(서산공항)	3,600.0	-	-	3,600.0
	2-3-3 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40,776.5	921.6	19,367.3	20,487.6	
3 메가리전의 중심지로 육성	3-1 베이벨리 K-SPACE 조성	3-1-1 K-SPACE 개발	33,000.0	-	12,000.0	21,000.0
		3-1-2 베이벨리 순환고속도로 건설	53,303.0	-	-	53,303.0
	3-2 베이벨리 초광역교통망 구축	3-2-2 베이벨리 순환철도 건설	66,067.0	-	-	66,067.0
		3-3-1 K-골드코스트 조성	2,900.0	1,242.9	1,657.1	-
	3-3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확충	3-3-2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550.0	280.0	270.0	-
		3-3-3 베이벨리 생활지원 인프라 확충	5,580.0	1,127.9	4,252.1	200.0
계			328,782.9	9,182.9	91,943.0	227,657.0

1. 추진배경 및 경위

-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주강삼각 주의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이자 베이 지역임
- 웨강아오대만구를 처음 언급한 것은 2016년 1월 30일 광둥성 12기 인민 대표대회에서 4차 회의 심의를 통과한 「광둥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요강(广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임
- 2017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의 협력 심화 및 대만구 도시군 발전계획을 연구 제정할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만구 개념을 논의하기 시작
- 2019년 2월 중국 국무원은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 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을 발표

2. 웨강아오대만구 현황과 여건

- 웨강아오대만구는 지리적으로 광둥성 9개도시,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중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권역 중 한 곳임
 - 면적은 56,098km², 인구는 8,662만 명임
 - 전체 GRDP는 19,435억 달러, 일인당 GRDP는 22,585달러임
 - 수출액은 13,414억 달러임

그림 1.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



자료: HKTDC(2019. 2. 20),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표 1.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주요 지표(2022년)

지역 구성	광둥성 9개 도시, 홍콩, 마카오
면적(km ²)	56,098
인구(만 명)	8,662
전체 GDP(억 달러)	19,435
1인당 GDP(달러)	22,585
수출액(억 달러)	13,414

자료: HKTDC, Statistics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ttps://research.hktdc.com/en/article/MzYzMDU5NzQ5>

이 절에서는 주요 도시의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함

1) 광둥성 9개 도시

- 광둥성 9개 시는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둥관(東莞), 주하이(珠海), 중산(中山), 후이저우(惠州), 포산(佛山), 자오칭(肇慶), 장먼(江門)임

① 광저우시

- 중국 광둥성의 수도이며, 1차 연해개방도시 중 하나임.
- 농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나 개혁개방 이후 비중이 낮아짐
 - 농업이 무척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의 신속한 성장으로 인

해 2014년에 이르러서는 농업인구가 76만명이고, 농업생산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2010년)에 불과함

○ 광저우시의 현재 기간 산업은 자동차산업임

- 광저우시는 전통적으로 경공업이 발달했으나 1990년대 이래로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공업과 전자정보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했으며, 현재 자동차생산이 광저우시의 가장 큰 산업으로 발돋움했고 광저우시의 GDRP와 시 재정수입을 지탱하고 있음
- 일본의 3대 완성차업체들과의 합작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광저우시의 자동차생산량은 310.8만대를 기록

○ 최근 정보기술, 인공지능, 생물의약을 신항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첨단산업 분야에서 광저우시는 “중국제조2025”의 테스트도시 중 하나임. 2010년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프로젝트인 중싱광저우지식성(中新廣州知識城)이 자리잡아 과학기술혁신, 첨단제조업,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권보호 등 영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2017년 광저우시는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생물의약 등 신항사업을 발전시켜 3대지주산업을 IAB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선포, 2018년 광저우의 첨단기술기업은 1만1천개 업체에 달함

② 선전시

○ 중국 광둥성의 계획단열시¹⁾이며, 중국의 4대 일선도시(一線城市) 중 하나임

- 2018년 선전시의 GRDP는 처음으로 홍콩을 앞질러 웨강아아오대만구에서 GRDP 1위 도시로 올라섬

○ 선전의 2차산업 비중은 33.4%로 주요 산업은 전자정보, 생물의약, 신에너지·신소재 등을 3대 영역을 보유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선전의 21개 기업의 글로벌 100개 전자정보기업에 이름을 올렸음: 화웨이, 중싱, 창청컴퓨터, 황웨이, 화창, 다장황신, 진디에, 다주레이저 등
- 텅센트의 본사가 있으며,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 등 인터넷기업이 선전에 연구개발기지나 사업부를 두고 있음
- 생물의약 분야에서는 생산기술, 시설 및 건축여건 등에서 세계 일류 수준을 갖

1) 우리나라의 특례시에 해당하며, 행정적으로 상급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음

추고 있으며, “화다지인(Huada Gene)”은 글로벌 인류 게놈 프로젝트의 ‘중국 부분’을 완성했고, 옌황일호(炎皇一號)²⁾, 벼 게놈 프로젝트 등 국제 선진수준의 게놈 프로젝트 연구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신에너지·신소재 분야에서 2013년 동맹을 설립하고 에너지와 소재분야의 산업 선발이익을 강화하고 있으며, BYD가 이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음

○ 서비스업 중 금융 관련 증권거래소가 선전에 자리잡으면서 선전은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했음

- 자오상은행, 자오상증권, 중심증권, 평안보험, 난방기금 등 기업들이 선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첸하이선강현대서비스업합작구가 선전에 자리잡으면서 금융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③ 둥관시

○ 둥관시는 광둥성의 지급시의 하나로서 선전시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음

○ 둥관시는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산업전환을 겪으면서 첨단 공업화하고 있음

- 재료수입가공수출 방식의 노동밀집형가공업을 받아들여 발전하여, 홍콩과는 “앞에는 가게 뒤에는 공장”의 관계를 형성하여 공업화 달성

- 1990년대 중반 타이완 전자정보업체들이 대거 둥관으로 진출하여 둥관이 첨단 기술형으로 변모

○ 2010년 전후 전세계의 스마트폰 열풍의 기회를 포착하여 전세계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발돋움하여 한때 세계 스마트폰의 1/4를 생산

- 둥관은 현재 화웨이, OPPO, Vivo등 유명 스마트폰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조립생산에 특화되어 있음

○ 전기기계설비제조는 둥관의 두 번째로 큰 산업부문으로 금형, NC머신, 산업용로봇 등 산업군은 이미 규모있는 클러스터를 갖추었음

○ 이외에도 식음료, 제지, 완구, 가구, 화공, 포장인쇄 등은 전통적으로 집적을 이룬 산업임

2) 100명이 황인종에 대해 게놈염기서열을 측정하는 계획으로, 선전화다지인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정보시스템국가공정연구센터와 중국과학원 베이징지인연구소가 합작하여 연구하고 있음

④ 주하이시

- 주하이는 광둥성의 지급시로서 국무원이 지정한 경제특구이자 주장 하구 서안의 핵심도시임
- 주하이는 전국에서 유명한 해변관광도시임
- 농업 분야에서는 수산양식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특히 전국 최대 농어(海鱸)양식기지로 전국 생산의 80%를 생산
- 전자정보, 생물의약, 가전전기, 전력에너지, 석유화공, 정밀기계제조 등은 주하이 경제의 6대 주력산업임
 - 그 중 형친(橫琴)신구는 국가급신구로서 국가자유무역시험구로서 금융서비스, 첨단기술, 중의보건 및 문화창작여행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⑤ 후이저우시

- 광둥성의 지급시 중의 하나임
- 광둥성의 주요 농업생산지역으로 식량, 육류, 채소, 과일의 주산지로서 유명
- 휘이저우시의 가장 큰 주력산업은 전자제조업임
 - 대표 기업은 TCL, 더사이(德賽)그룹, 화양(華陽)그룹, 차오싱(僑興)그룹 등임. 이 중 TCL과 더사이는 중국국가공상총국이 인정한 중국저명상표임. 이외 GM,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 LG, 삼성, 지멘스, NEC 등 외자기업들이 있음
 - 휘이저우는 현재 세계 최대의 DVD, VCD 옵티컬 디바이스의 생산기지이며, 세계 최대의 전화기, 전지, 인쇄회로기판, 컬러TV 제조 기지임
- 휘이저우에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은 석유화학업임
 - 다야완(大亞灣)경제기술개발구에는 건설 완료했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15개로 투자총액은 730억 위안을 넘음
- 한중(후이저우) 산업단지는 1992년 국무원 비준으로 형성된 국가급 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임
 - 중카이(仲恺)고신구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적으로 후이저우시의 서남쪽에, 후이저우 시내로부터 5km, 후이저우항에서 50km 떨어져 있음. 구역 면적은 320km²이며, 현재 개발된 면적은 약 80km², 도시건설부지는 103.37km².
 - 후이저우 삼성전자는 1992년 설립돼 20년간 전 세계 삼성 핸드폰의 3분의 1을

생산, 후이저우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함. 2015년 말 기준, 후이저우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삼성, LG를 포함해 233개에 달함

- 한중(후이저우) 산업단지는 단지 내 IT산업을 기반으로 Mobile Internet 산업, 중합광전산업, 에너지산업, 스마트설비제조산업, Cloud Computer 산업, 문화산업, 생명과학산업, 직구전자상거래, 석유화학산업, 생태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 중에 있음
- 한중자유무역협력시범구, 한중첨단산업발전시범구, 한중창신창업연동시범구, 한중첨단문화교류시범구, 한중친환경산업발전시범구가 중점육성 지역임

⑥ 중산, 포산, 자오칭, 장먼 등은 특이 사항은 없어 생략함

- 대체적 상황 관련하여는 <표2>를 참조할 것

2) 홍콩

- 중국 주강 삼각주 동쪽에 있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임
 - 홍콩은 이전에 영국령 홍콩으로, 1842년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가 당시 대영제국에 양도한 후, 홍콩은 1997년 이양 직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음
 -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중국 대륙과 분리된 정치체제와 경제구조를 가짐
- 홍콩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교역규모의 지역이며, 홍콩 달러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화폐
 -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인당 GDP를 자랑하나,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는 지역이기도 함
- 홍콩의 농업은 비중이 작고 식량자원과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
 - 홍콩 전체식량공급량의 90% 이상이 수입해온 것이며, 농업활동은 홍콩 GDP의 0.1% 수준으로 고급 식재료와 화훼 재배가 대부분임
- 홍콩은 서비스 산업이 주요한 부분임
 - 서비스산업은 홍콩 경제생산량의 92.7%를 차지하며, 공공부문이 10%를 차지
 - 영국령 시절 후반기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제조 경제 규모를 가졌으나 중국 본

토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제조업 규모는 급속히 축소됨

-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 본사를 유치한 도시임
 - 홍콩은 중국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상하이 혹은 선전의 증권거래소와 연계하여 중국 본토 시장에 접근하고 있음
 - 홍콩은 중국 대륙 외에서 최초로 인민폐로 표기된 채권이 거래되었으며, 해외 인민폐 거래규모가 매우 큰 중심지 중 하나임
- 관광산업은 홍콩경제의 주요 산업이며, 전체 GDP의 5%를 차지

3) 마카오

- 마카오(澳門, Macau)는 동아시아의 도시이자 중국에 속한 특별행정구임
 - 1997년 포르투갈령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음
- 도박과 관광업은 마카오의 주력산업으로 현재 세계 제일의 '도박도시'임
 - 2016년 기준 도박업의 수입은 2,241.28억 마카오위안이며, 납세액은 843.75억 마카오위안으로 정부재정수입(1024.12.억 마카오위안)의 82.4%를 차지
 - 2016년 기준 마카오에는 38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6,287개의 테이블이 있음
- 여행업에서는 중국 대륙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큼
 - 2003년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개인 여행을 허가하여 중국 대륙 주민들의 마카오 여행을 촉진했음
 - 2019년 마카오 여행객의 90% 이상이 중국 내륙, 홍콩 및 타이완에서 왔으며, 중국 내륙의 비중은 70.9%였음

표 2. 웨강아오대만구 주요도시 현황

구분	면적(km ²)	22년 인구 (만 명)	22년 GRDP (억 위안)	일인당 GRDP (위안)	산업 구성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광 둥 성	광저우	7,434	1,873	28,839	153,939	1.2	27.4	71.5
	선전	2,051	1,766	32,388	183,377	0.1	38.3	61.6
	둥관	2,465	1,044	11,200	107,313	0.3	58.2	41.5
	주하이	1,724	248	4,045	163,302	1.4	41.9	56.7
	후이저우	11,343	605	5,401	89,273	5.3	54.4	40.3
	포산	3,848	955	12,698	132,940	1.5	56.4	42.1
	중산	1,784	443	3,631	81,945	2.4	51.1	46.5
	자오칭	14,891	413	2,705	65,528	18.9	39.0	42.1
	장먼	9,505	482	3,773	78,242	8.6	45.7	45.7
홍콩	1,104	733	24,300	331,370	0	1.2	98.8	
마카오	33	67	1,470	218,490	0.3	9.5	90.1	

자료: 바이두 검색, 도시별 기관 홈페이지 검색

2.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 웨강아오대만구발전규획요강(粵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은 2024년을 기점으로 공표된지 5년이 경과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 허브 조성 △역내 인프라 연결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함

1) 과학기술혁신 허브 조성

-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선전시를 중심으로 웨강아오대만구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분야의 상호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웨강아오대만구를 글로벌 기술혁신의 허브와 첨단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시키 고자 함
 - 광저우시는 중국과학원 산하의 연구기관 유치와 협력 강화를 토대로 해양, 항공, 지질 등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충
 - 선전시는 화웨이, 텐센트 등 민간 IT 기업의 R&D 투자가 왕성한 지역으로, 시 정부는 기업주도의 응용연구, 개발연구 활성화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초 연구 기반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그리하여 2017년 10대 기초과학 인프라 건설에 관한 정책(「深圳市十大重大科技基础设施建设实施方案」)을 발표하고, △ 5G △ 인공지능 △ 바이오의약 분야 등 중점분야에 대한 기초연구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 중임
 - 이외에 광둥, 홍콩, 마카오 연구기관 간에 중점 R&D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실험실이 다수 운영되어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점진적으로 구축되고 있음. 형태적으로 상호 공동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갖춰갈 뿐 아니라 홍콩의 국가별 연구 협업 추이를 보면 최근 다른 국가와 비교해 중국 본토의 협 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3. 광둥, 홍콩, 마카오 간 공동연구실험실 설립 현황(2023년)

분야	지역	명칭
신소재	광저우	粤港澳大湾区电磁功能材料联合实验室
	선전	粤港澳大湾区热能电源材料与器件联合实验室
인공지능	선전	粤港澳人工智能协同系统联合实验室
보건의료	광저우	粤港澳大湾区呼吸系统传染病联合实验室

	광저우	粤港慢性肾病免疫与遗传研究联合实验室
	광저우	粤港澳中医药与免疫疾病研究联合实验室
	광저우	粤港RNA医学联合实验室
환경	광저우	粤港澳环境质量协同创新联合实验室
	광저우	粤港澳污染物暴露与健康联合实验室
	광저우	粤港澳环境污染过程与控制联合实验室
	주하이	粤港水安全保障联合实验室
IT	선전	粤港澳智慧城市联合实验室
	선전	粤港大数据图像和通信应用联合实验室
	주하이	粤港澳商品物联网联合实验室
기초과학	광저우	粤港澳离散制造智能化联合实验室
	둥관	粤港澳中子散射科学技术联合实验室
	광저우	粤港量子物质联合实验室
	포산	粤港澳智能微纳光电技术联合实验室
	선전	粤港澳数据驱动下的流体力学与工程应用联合实验室

자료: 粤开证券(2023. 6. 8), 「粤港澳大湾区科技创新发展报告2023」

- (기술혁신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및 기금 설립)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역내 글로벌 혁신자원의 집적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제도 및 정책 환경의 개선을 강조
- 우선 광저우 화남(광저우)기술이전센터, 허타오 선전·홍콩 과학기술혁신 협력구 등 연구개발성과를 거래하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연구개발의 정책자금 운용 측면에서 웨강아오 지역 내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홍콩·마카오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신청과 홍콩·마카오에서의 자금 사용을 허용.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합으로 '웨강아오 기술혁신 펀드'의 설립과 기술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며, 관련 자금의 국경 이외의 사용을 허용

2) 인프라 연결

- 웨강아오대만구 내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통 인프라의 기본 틀은 이미 갖춰진 상태이며, 웨강아오대만구의 항공, 육상, 해상 교통 인프라의 이용객 및 화물처리량은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높은 순위권 차지
 - 웨강아오대만구는 전 세계에서 공항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11개 도시 내 7개 공항이 운영 중이며, 대표 항만인 선전항, 홍콩항, 광저우항 모두 화물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10대 항구에 포함됨
- 홍콩을 중심으로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의 인프라 연결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연계 사업을 추진해 지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 2022년 6월 기준, 웨강아오대만구 지역 개통 철도길이 2,500km, 고속도로 4,972km로 도로망 밀도가 100km² 당 9.1km²에 달함³⁾
 - 강주아오(港珠澳, 홍콩·주하이·마카오(2018))대교 개통으로 홍콩과 마카오가 정식으로 중국 국가 고속도로망에 연결되면서 웨강아오대만구 전체에 막힘없는 교통망을 완성
 - 강주아오대교에 이어 건설 중인 선중통로(선전-중산)는 총 길이 24km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해상 교량 클러스터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장삼각주 중심부 도시(난짜대교(2019)/후먼대교(1997): 광저우-둥관)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과 주장삼각주 내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1시간 광역생활권 구축
 - 이외 광저우(广州)-선전(深圳)-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이 개통되어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등 역내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내로 좁히기 위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
- 웨강아오대만구의 동부와 서부지역 간 교통 인프라 연결은 역내 토지 부족, 높은 인건비 문제를 안고 있는 동부지역과 토지가격 및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부지역 간 경제협력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격차 축소하려는 측면에서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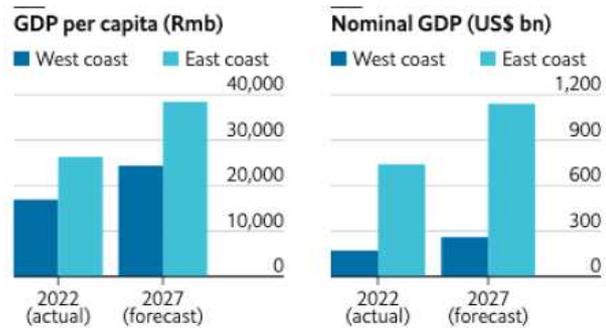
3) 한계례(22.06.14) '수준 높은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그림 2. 주요 도시 간 교통인프라 연계



자료: EIU(2023. 10 . 24).

그림 3. 주장삼각주 동부와 서부지역의 2022년 1인당 GDP, 명목 GDP 및 향후 전망



주: 주장삼각주 동부지역은 선전시, 둥관시, 후이저우시이고 서부지역은 주하이시, 중산시, 장먼시임.

자료: EIU(2023. 10 . 24).

- 교통인프라 이외에 정보통신 및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능형도시 건설을 위한 역내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역내 통신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역내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의 감면안을 검토하고자 함
- 역내외 전력·천연가스 공급망을 확충,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신설·증설, 석탄 및 석유 비축기지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 또한 지능형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통일된 표준을 도입,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 교통, 에너지, 정부 서비스 등 방면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3)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 웨강아오대만구 중 제조업 중심의 전통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녹색기술의 접목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허브와 연동 추진
- 주장삼각주 서부지역인 주하이시, 포산시는 장비제조업, 주장삼각주 동부지역의 선전시, 둥관시는 전자산업, 광저우시, 포산시에는 자동차제조업이 밀집. 전통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녹색기술 접목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 그리고 광저우, 선전, 홍콩 등지의 첨단 과학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활용해 차세대 IT산업, 바이오의약산업, 첨단장비제조업, 신소재

산업 등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

-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시, 선전시, 홍콩, 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 관광서비스, 문화창의, 인력중개서비스, 컨벤션산업, 회계·법률 등 전문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 추진
 - 웨강아오대만구에 투자한 홍콩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별도의 시장진입 완화 조치를 마련, 역내 홍콩 기업의 서비스업 진출·협력 활성화
- 중국 내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선두지역인 웨강아오대만구는 약 3,480개의 패키징 기업이 소재하여 중국 내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 특히 홍콩은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EDA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산업발전기금인 중국경제개혁연구연구기금회(中国经济改革研究基金会)와 ‘웨강아오 대만구 과학기술혁신 산업투자기금(粤港澳大湾区科技创新产业投资基金)’을 설립

표 4. 웨강아오 대만구 산업발전계획

구분	주요 분야
제조업 업그레이드	- 장비제조, 자동차제조, 석유화학, IT제품 등 전통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생산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 차세대 IT 산업, 바이오의약품산업, 첨단장비제조업, 신소재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서비스업 발전	-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허브 건설 - 물류, 관광서비스, 문화창의, 인력중개서비스, 컨벤션산업, 회계·법률 등 전문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육성
해양경제 발전	- 어업, 해운, 선박 등 전통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 해양바이오, 해양장비산업 육성 및 석유화학 집약적 발전 도모 - 항만물류, 해양관광, 해양정보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업 발전

자료: 中共中央, 国务院(2019),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3.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웨강아오대만구발전계획요강(粵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은 2024년을 기점으로 공표된지 5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지역 간의 상호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웨강아오대만구의 역량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⁴⁾
- 웨강아오대만구가 유발한 경제적 효과는 하나의 선전(深圳)을 새로 만들어낸 것과 맞먹는다고 평가받음. 전국 0.6%밖에 되지 않는 국토와 6%의 인구로 GDP의 1/9을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냄
- 웨강아오대만구 내 과학기술혁신중심(大湾区国际科技创新中心과 국가종합과학중심(大湾区综合性国家科学中心)의 조성 과 발전을 기반으로 31개의 연합실험실이 운영 중
- 지역 간 인프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연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주요 타깃은 교통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주요 도시 간 1시간 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동안 지역 간 각기 다른 기준과 규제로 인해 원활한 액세스가 구현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
-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혁신적인 협력을 도출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항산업 발달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
- 생활-일-여행 세 가지 측면이 잘 융화된 생활권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 중임
- 2023년 기준, 형친(横琴), 난샤(南沙), 첸하이(前海), 허타오(河套)와 같은 4개의 합작구를 중심으로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

2) 한계

- 웨강아오대만구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4)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726263755911428&wfr=spider&for=pc> 및 <https://bj.crntt.com/crn-webapp/touch/detail.jsp?coluid=92&kindid=0&docid=106898342>를 토대로 작성함.

- 많은 성과를 창출해 냈음에도 광둥성-홍콩-마카오 3 지역 간 존재하는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부터 초래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
- 자본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제도가 혼재된 일국양제 체제로 인해 광둥성-홍콩-마카오는 각기 다른 시장제도와 법률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보다 원활한 교류를 저해하는 행정·제도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홍콩은 중영공동선언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마카오는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법적으로는 광둥성은 헌법을 토대로 한 사회주의 법계, 홍콩은 보통 법계를 기초하여 영미법을 따라 영국과 법률체계가 비슷하고, 마카오는 대륙법 체계를 사용했으나 포르투갈의 해외 속지 법률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짐
 - 경제제도에서는 금융개방의 경우 거시적 안목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외부 인재에 대해서 홍콩은 자국의 우수인재 보호를 위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산업적으로도 지역산업 보호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하지 않고 있음
 - 삼자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행정제도에 존재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한 창의적인 도전이 요구되나, 상호 간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공공부문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 및 시도하는 것은 녹록지 않음
 - 제도적 노력은 이미 1998년 ‘광둥성-홍콩 합작연석회의’부터 시작됐으나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하고, 세 지역 간 협력과 소통을 거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은 해당 지역의 협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

4. 광둥성 주요 개발구 소개

- 광둥성에는 여러 가지 개발구가 있으나 본 과제에서는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 선전 개발구 등 3개 개발구에 한정하여 검토함

① 광저우 개발구

- 광저우 개발구는 6개 개별구를 통칭하는 용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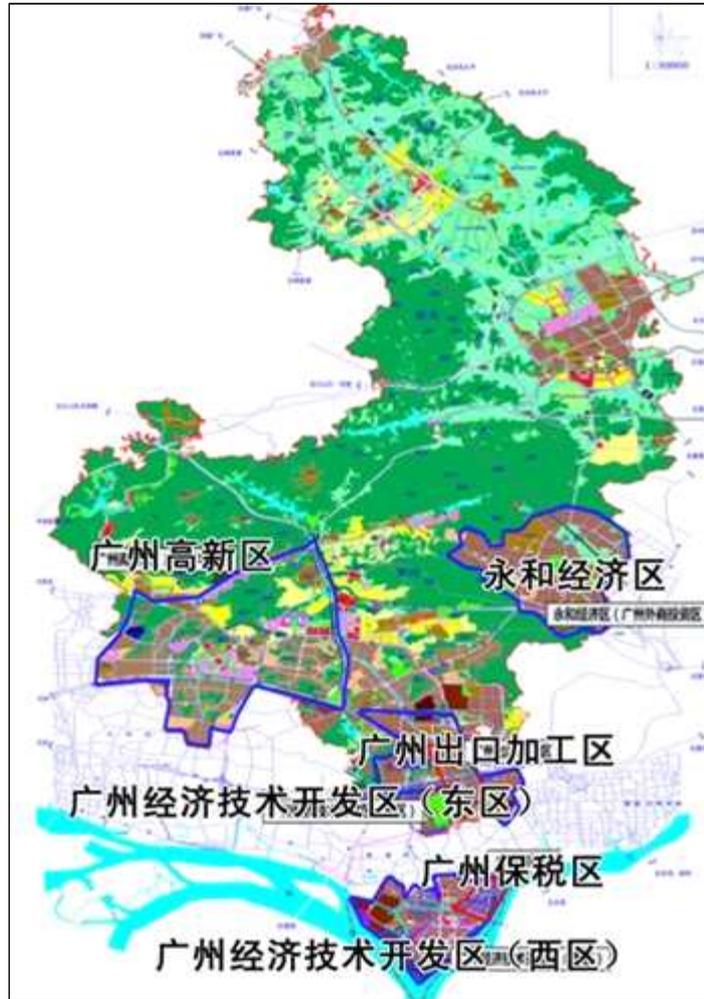
- 광저우 개발구는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광저우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광저우수출가공구, 광저우보세구, 종신평저우지식성, 황푸구 등 6개 구(zone)로 구성
- 광저우 개발구는 6개 개별구가 통합된 관리기구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음
 - 광저우 개발구는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등 6개 구(zone)로 구성되어 있음
 - 초기에는 6개 구가 각자 관리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다른 개발구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단일 통합관리체계를 갖추

〈광저우 개발구의 육합일(六合一) 연혁〉

- 1984년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설립
- 1992년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광저우보세구 설립
- 1998년 광저우 고신기술산업개발구(1988년 설립)와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가 통합운영
- 2000년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범위 내에 면적 2평방킬로의 광저우 수출가공원구 설립
- 2002년 광저우보세구는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의 관리에 편입 → ‘광저우개발구’ 명칭 사용
- 2012년 종신평저우지식성관리위원회와 광저우개발구관리위원회가 통합운영됨
- 2015년9월1일 원래의 황푸구(黃埔區), 멩강구(萝岗区)가 합병되어 새로운 황푸구(黃埔區)가 정식성립하여 광저우개발구와 깊숙히 융합된 관리체계를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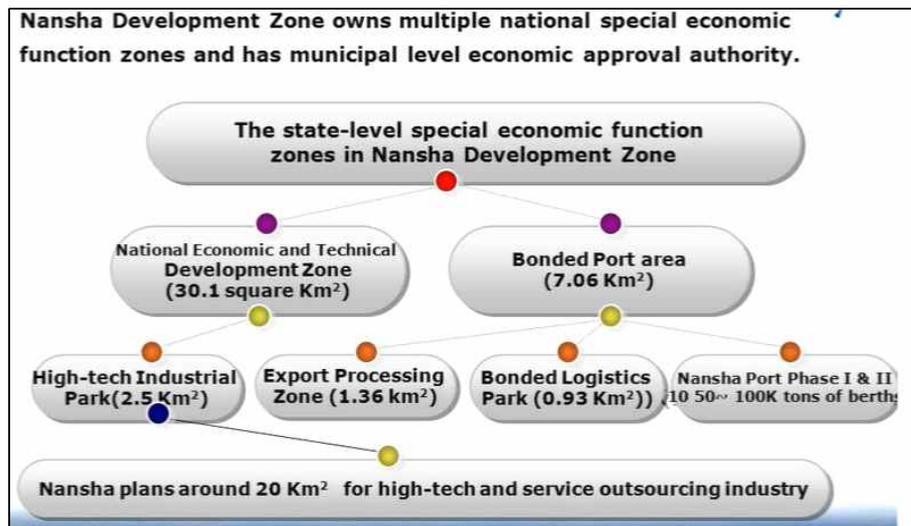
- 광저우 개발구는 지리적으로 6개구가 크게 4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음
 - 보세구와 경제기술개발구(서구)는 연접하여 있으며, 남단의 판오우구(區)와 접하고 있음
 - 수출가공구와 경제기술개발구(동구)는 연접하여 있음
 - 고신구와 용허개발구는 타 지구와 떨어져 있음
 - 이러한 개발구가 모두 광저우시 황푸구(黃浦區) 행정구역에 속해 있음

그림 4. 광저우 개발구 분포도



- 난샤 개발구는 거대 규모의 단일 개발구로서 단일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음
 - 난샤개발구는 1993년 설립된 난샤경제기술개발구를 지칭하며, 면적은 54km²임
 - 난샤경제기술개발구에는 수출가공구, 광저우고신기술산업원구(난샤컨설팅과기원), 보세물류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5. 난샤 개발구의 구성도



- 2002년에 광저우시는 난샤개발구의 건설과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저주난샤 개발구건설지휘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광저우시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 삼고 개발구범위내의 계획, 건설, 관리 및 투자유치 등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게 했음. 이 기구는 광주시시급의 심의관리권한을 보유케 함
- 한편 2005년에는 난샤구가 행정구로서 설치되었으며 이는 광저우시의 하나의 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면적은 536km²(육지면적 330km²)임.
- 2014년 난샤신구가 국가급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난샤 개발구의 세 가지 다른 의미〉

- “난샤 개발구” 는 3가지 상이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첫째, 1993년 지정된 광저우난샤경제기술개발구(廣州南沙經濟技術開發區), 약 30km²
- 둘째, 2005년에 설치된 광저우시 산하 행정구역으로서 난샤구(南沙區), 570km²
- 셋째, 2014년 지정된 자유무역시험구로서 난샤신구(南沙新區), 60km²

그림 6. 난사자유무역시험구 편구 분포도



- 선전개발구는 광둥성 선전시 역내의 각종 개발구를 통칭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음
 - 첸하이선강(前海深港)현대서비스합작구(2010), 파랑(大浪)패션창의성(2003), 선전평산종합보세구(深圳坪山综合保税区)(1994), 선전과기원(深圳科技园)(1996), 선강과기창신합작구(深港科技创新合作区)(2017), 푸톈(福田)보세구(1991), 셔커우(蛇口)공업구(1979) 등을 포괄함
 - 선전 개발구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 계통에 따라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기법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외부환경을 분석할 때 연구자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균형 있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그림 7. 선전개발구 분포도



1. 비교의 대상의 선정

1) 베이밸리와 웨강아오대만구의 비교가능성

- 웨강아오대만구와 베이밸리는 규모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급의 비교 대상은 아님
 - 웨강아오대만구는 면적이 55,904km², 인구는 약 7천만 명이고, 베이밸리는 면적은 4,379km², 인구는 320만명으로, 웨강아오대만구가 베이밸리의 10배 이상임
 - 웨강아오대만구는 우리나라 절반의 면적이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많으므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표 5. 베이밸리와 웨강아오대만구 현황 비교

구분	웨이강아오대만구	베이밸리
지역구성	광둥성 9개 도시, 홍콩, 마카오	충남도 4개 시, 경기도 4개 시
면적(km ²)	55,904	4,379
인구(만 명)	6958	320
GRDP(억 달러)	15124	1569
일인당 GRDP(달러)	21750	43656
수출액	10901	1397

- 권역의 성격 측면에서 보면, 웨강아오대만구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또는 초광역권(Megaregion)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베이밸리는 메가시티

(Megacity) 성격임

- 초광역권은 다수의 도시와 주변의 저밀 배후지의 다핵적 집적지(poly-centric agglomeration)들이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거대경제권인데 비해, 메가시티는 단일 통근권으로 구성되는 경제권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웨강아오대만구는 복수의 통근권이 연결하여 발달한 것으로 다수의 메가시티가 연결한 초광역경제권이며, 베이밸리는 단일한 통근권을 지향하는 초보적 메가시티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

- 아메리카 2050 프로젝트(America 2050 Project)에서 지리적·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한 “초광역권”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으며, 초광역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기반이 된 이 개념에 따르면 초광역권은 “통근패턴, 비즈니스 통행, 자연경관 및 유역, 경제권 및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된 복수의 인접 도시권역”으로 정의됨
- 이를 더 발전시켜 초광역권을 “노동 및 자본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통합된 일련의 도시들과 그 주변 배후지”로 정의함(Florida, Gulden and C, 2008, p.459)
-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는 초광역권을 도시 회랑(urban corridors), 도시권(city-regions) 등과 함께 새로운 세 가지의 도시적 구성으로 파악하고, 초광역권 특징을 “복수의 도시들이 지역의 영향권 내에서 상호 통합된 것으로 인구, 경제성과 측면에서 메가시티나 메타시티를 넘어서며, 광역 시장, 고급노동력 및 혁신을 결합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규정한다(UN+habitat, 2014, p.36)

○ 규모 및 성격에 따른 베이밸리와 비교 대상은 웨강아오대만구 전체라기 보다는 그 하위 구성 부분인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 셴전 개발구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

- 광저우 개발구는 광둥성 광저우시에 산재한 다수의 개발구를 단일 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난샤 개발구는 광둥성 광저우시에 위치한 거대 규모의 단일 종합 개발구임
- 셴전 개발구는 광둥성 셴전시에 산재한 다수의 개발구를 지칭하며, 단일 관리기관 없음

○ 베이밸리와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 셴전 개발구 간 비교가능성이 비교적 현실적임

- 광저우 개발구는 광둥성 광저우시가 통합관리하는 6개 개발구를 지칭함
- 난샤 개발구는 광둥성 광저우시 난샤구에 소재한 난샤개발구를 지칭
- 셴전 개발구는 셴전시에 산재하여 개별 관리되는 7개 개발구(특구)를 통칭함

표 6. 베이밸리와 웨강아오대만구내 개발구 비교

구분	광저우 개발구	선전 개발구	난샤 개발구	베이밸리
지역 구성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광저우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광저우수출가공구 광저우보세구 중심광저우지식성황푸구	첸하이선강(前海深港)현대서비스합작구(2010) 따랑(大浪)패션창의성(2003) 선전핑산종합보세구(深圳坪山综合保税区)(1994) 선전과기원(深圳科技园)(1996) 선강과기창신합작구(深港科技创新合作区)(2017) 푸텐(福田)보세구(1991) 셔커우(蛇口)공업구(1979)	황거전(黄陂镇), 난샤경제기술개발구, 링산전(灵山镇) 동남자락, 헝리전(横沥镇), 주강관리구, 완칭사전(万顷沙镇), 판위취웨이컨공사(番禺 區匯譽公司)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 부곡, 원정, 우정, 포승) 석문국가산업단지, 평택오성외투단지, 화성장안(1)외투단지, 화성장안(2)외투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 포승), 충남경제자유구역(미정)
최초 설치 연도	1984	1979	1993	1991
면적 (km ²)	480.56	475.03*	536(육지면적 330)	54.22
감독 기구	광저우시인민정부 산하 광저우개발구관리위원회	선전시첸하이선강현대서비스합작구관리국 등	광저우난샤개발구관리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시·도지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충남경제자유구역청(예정)

주: *이 면적은 첸하이선강(前海深港)현대서비스합작구(120.56), 따랑(大浪)패션창의성(4.6), 선전핑산종합보세구(深圳坪山综合保税区)(174.4), 선전과기원(深圳科技园)(159.49), 선강과기창신합작구(深港科技创新合作区)(3.87), 푸텐(福田)보세구(1.35), 셔커우(蛇口)공업구(10.76)를 합한 면적임

2. 4개 지역 간 비교

- 비교 차원은 크게 개발구의 입지, 구성, 관리체계로 나누어 비교 수행
 - (국토 위상) 경제중심지와 관련된 지리적 상대 지위와 대외관문의 보유 등을 중심으로 비교
 - (산업위상) 다수의 개별개발구가 어떤 속성의 개별 개발구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주력산업 특화 수준을 비교함
 - (관리체계) 관련 개발구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산재한 다수의 개발구를 관리하는 체계의 비교

1) 국토 위상

① 국토 위상

- 웨강아오대만구의 중심 도시는 홍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홍콩-선전 개발구-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 등의 위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홍콩은 웨강아오대만구의 중심도시이자 금융 중심지이며 가장 대표적인 대외관문을 보유하고 있음
 - 선전 개발구는 초기에는 제조업 하청생산기지에서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집적지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홍콩의 금융서비스업 일부를 육성하고자 함
 - 광저우개발구, 난샤개발구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난샤개발구는 중화학공업, 기계산업이 주력산업임
- 베이밸리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인경제권의 구성부분으로서 서울-인접 경기도-원격 경기도와 같은 체계에서 원격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음
 - 베이밸 리가 속해 있는 경인경제권은 서울을 핵심으로 하고 그 배후지가 경기도(인근), 경기도(원격)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베이밸리 권역은 경기도(원격)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베이밸리는 웨강아오대만구의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와 국토위상이 유사하나 선전 개발구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음
 - 국토위상의 측면에서 베이밸리는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와 유사한 국토위

상을 갖고 있음

- 베이벨리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상 선전 개발구와 유사함

② 대외 접근성

- 광저우 개발구는 황푸항과 바이윈국제공항을 지척에 보유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 주장 하구의 북측에 자리잡은 황푸(黃浦)항은 화난지구 최대 연해 및 원양 교통 운수 중추로서, 1987년 황푸항은 내항항구, 신사항구, 남사항구 등과 함께 광저우항으로 편입되었으며, 2020년 기준 광저우항의 물동량은 6.36톤으로, 전세계 4위 규모임
 - 광저우 개발구는 광저우시의 유일한 국제 공항인 바이윈(白雲)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와 교통 가능함. 하며, 3개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객 수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 이어 중국 국내 3번째로 이용객이 많음. 시 중심으로부터 28km 떨어져 있어서 시내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

- 난샤 개발구는 최근 자체 항만을 설립했으며, 공항은 바이윈국제공항 등 인근 국제공항 이용 가능
 - 롱쉐다오(龍穴島)에 난샤항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기준 물동량이 2.82억톤에 달함
 - 공항은 바이윈국제공항 이용 가능

- 선전시는 자체의 항만과 국제공항을 겸비하고 있음
 - 총 8개 항구를 갖고 있으며, 첸하이선강현대서비스합작구, 셔커우공업구, 선전과 기원 등은 항구와 인접해 있음. 2018년 기준 화물 물동량은 2.51억톤임
 - 선전 개발구는 자체의 바오안(寶安)국제공항이 있음. 2개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에 바이윈국제공항과 홍콩국제공항이 있으므로 국제항공편이 발달한 편은 아님. 시 중심으로부터 32km 떨어져 있어서 시내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

- 세 개발구 모두 국제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전시는 홍콩과 인접하여 홍콩항을 통해 물동량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체의 항만도 보유하는 등 인접 항만끼리의 보완 및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2) 산업 위상

① 개발구의 구성

- 세 개발구의 공통점은 보세구 등 수출 관련 특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임
 - 광저우 개발구는 수출가공구, 보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샤 개발구는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선전 개발구는 평산종합보세구, 푸톈보세구를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보세구나 수출가공구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수출가공구, 보세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수출가공구는 접경지역에 주로 조성하는 수출공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이유형에 속함

〈수출가공구의 특징〉

- 수출가공구(수출공단)는 광의로 해석하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자유항, 자유무역지역, 비관세지역, 자유공업지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협의로 해석하면 한나라 안에서 경계선으로 설정된 개별 지역이며,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및 이 지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수출입)는 모두 한나라의 일반무역제도, 관세 제도와 별도의 제도 즉 자유무역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을 의미
- 세계수출공단협회는 수출공단을 “정부가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비관세구역, 자유공업단지, 대외무역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단지 또는 구역으로 승인한 모든 수출단지” 로 정의함
- 유엔공업개발기구는 수출공단은 “개발도상국에서 지리적으로 분리한 작은 지역으로 특별한 우대를 향유하는 지역” 이라고 정의함
-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자유지역이라고 부름

〈보세구의 특징〉

- 보세(保稅)구역이란 외국물품이 반입될 수 있는 구역으로, 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장치하거나, 사용·소비하는 곳으로 세관에 의한 수출입 물품관리의 중심이 되는 장소임
-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은 아니나 외국물품이 반입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세구역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자유무역지역(FIZ : Free Trade Zone), 자유항(Free Port), 수출자유지역(EFZ : Export Free Zone)과 보세구역외장치장도 있음
- 이러한 보세구역의 역할은 ①관세징수권의 확보, ②통관업무의 효율화, ③수출 및 산업지원 등이 있음

② 주력 산업의 구성

- 광저우개발구(广州开发区)는 지난 2020년 3월 《광저우시 황푸구 광저우개발구 광저우고신구의 ‘신 인프라’ 건설 가속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발전촉진10조(广州市黄埔区广州开发区 广州高新区加快“新基建”助力数字经济发展

十条, 이하 ‘신 인프라 10조’)》를 발표⁵⁾

- 《신 인프라 10조는 신형 인프라 건설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한다는 취지로 제조업 디지털화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제조업 구조전환, 고도화와 더불어 신업태, 신모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함
- 《신 인프라 10조는 새롭게 유치한 글로벌 첨단 디지털 기술 기업에 대해 이미 완료된 고정자산투자 총액의 최고 15%를 장려금으로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단일 사업에 대한 장려금은 최고 5억 위안(약 860억 원)으로 한다고 명시
- 이밖에 3년 동안 1억 위안(약 172억 원)을 투입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CPU칩 등의 기업을 육성하고, 정보기술 응용·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며 e스포츠, 디지털 의료, 디지털 농업 등 신업태, 신모델 발전을 장려하기로 함
- 《신 인프라 10조는 자금, 인재, 기술 등 방면에서 신 인프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 외에도 디지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힘.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디지털 보안제도 체계 구축을 독려하며, 공공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핵심 신형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함
- 광저우개발구, 광저우고신구는 지역 특색의 산업 인프라, 지역적 포지셔닝, 자원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 인프라 4대 구역’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여기에는 △ 광저우 위주지구(鱼珠片区) 인공지능·디지털 경제시험구 구축 △ 광저우 황푸구(黄埔区)의 과학성(科学城) 산업인터넷 융합·발전시험구 설립 △ 광저우 동북부에 위치한 지식성(知识城) 통신네트워크 국제 디지털 허브 구축 △ 광저우 국제 바이오기술 연구·생산기지인 바이오섬(生物岛)의 ‘바이오 안전 스마트섬’ 건설 등이 포함됨.

○ 난샤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함⁶⁾

- 난샤구 정부에 따르면 난샤구는 현재 이미 산업가치 천억 위안 이상의 제조업 산업클러스터 6개, 부가가치 천억 위안 이상의 서비스산업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바탕에 난샤구를 국제해운, 금융,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등을 육성하는 “4321 산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5) CSF, 2020, “광저우개발구, ‘신 인프라 10조’ 산업 정책 출범”(2020.4.7.)

6) KOTRA, 2022, “중국 투자 중점지역, 광저우 난샤개발구를 주목하라”(2022.11.25.)

〈난사 개발구 4321 산업체계란?〉

- “4” 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경제 산업, 바이오의료 및 건강산업, 해양신흥산업, 미래 산업 등 4대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을 의미
- “3” 은 자동차, 하이테크 장비, 신소재 등 3대 선진제조업 분야 업그레이드 추진을 위한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담고 있음
- “2” 는 해운, 금융, 과학기술, 전문서비스 등 생산 관련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고, 생활서비스의 고품질 발전 및 다양화를 위해 디지털 및 크로스오버 융합발전 추진을 내포
- “1” 은 현대농업체계·생산 및 경영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농업과학기술 육성으로 농촌 1~3산업 융합발전 추진 및 도시현대농업 정밀·고효율화를 의미

- 특히 산업기초와 성장잠재력, 투자환경 등 관점에 따라 난사구는 자동차제조, 항공항천, 반도체,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및 디지털경제를 적극 육성하고자 함

○ 선전시는 시장경제 개선 및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기조로 시의 경제발전을 추진⁷⁾

- 중국 국무원은 2020년10월 <선전 건설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형시범구 종합개혁 시행방안(2020~2025)>를 공표하여 2025년까지 중기 선전시 발전계획을 제시
- 토지관리제도 개선 및 선전시 정부의 자율권 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거주증 제도 개선 및 사모펀드의 도입과 디지털 위안화 등 자본시장에 시장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체제 도입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금융업과 해운업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예정
- 글로벌 인재확보를 위한 고급인재 대상 영주권 제공 등 제도개선 제시
- 이를 위해 선전시 정부는 2020년7월 <신형인프라 건설 실시의견(2020~2025)>를 통하여 발전 기본으로 과학기술 선도, 디지털화에 따른 응용사업위주, 디지털화 기반의 혁신 산업공급망, 네트워크화를 통한 혁신자원 공유를 제시. 실시의견은 빠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 조성을 밝힘

7) 김동수, 2020,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선전특구, CS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전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 조성 조치〉

- 첫째, 'AI+5G+8K' 관련 응용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2020년 약 100억 위안(환화 1.7조 원) 규모의 정부조달을 활용할 계획
- 둘째, 연구개발과 생산 그리고 유통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소비 및 재택경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시장 육성을 통하여 신산업육성을 공표
- 셋째, 국제적인 디지털 산업트러스터 조성의 청사진 제시, 초고속교통망(5G)과 산업 인터넷, 8K초고화질 동영상, 그리고 데이터 및 서버 관련 산업에서의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낸다는 계획⁸⁾

- 선전시는 화웨이 본사, BYD 본사, DJI, 아이어맨 슈트로 유명한 광치(光啟)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있으며, 텅쉰 등 IT기업이 입지해 있는 우위를 십분 활용하고 선전증권시장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

8) 이와 관련하여 난산(南山)구정부는 화웨이와 함께 쿤핑산업(PC, 서버, 빅데이터 스토리지, 클라우드 관련 산업)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5G등의 응용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함

3) 관리체계

○ 광저우 개발구는 6개 개발구가 통합된 관리기구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광저우 개발구는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광저우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광저우수출가공구, 광저우보세구, 종신평저우지식성, 황푸구 등 6개 구(zone)로 구성되어 있음
- 초기에는 6개 구가 각자 관리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다른 개발구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단일 통합관리체계를 갖추

〈광저우 개발구의 육합일(六合一) 연혁〉

- 1984년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설립
- 1992년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광저우보세구 설립
- 1998년 광저우 고신기술산업개발구(1988년 설립)와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가 통합운영
- 2000년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범위 내에 면적 2평방킬로의 광저우 수출가공원구 설립
- 2002년 광저우보세구는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의 관리에 편입 → ‘광저우개발구’ 명칭 사용
- 2012년 종신평저우지식성관리위원회와 광저우개발구관리위원회가 통합운영됨
- 2015년9월1일 원래의 황푸구(黃埔區), 멩강구(萝岗区)가 합병되어 새로운 황푸구(黃埔區)가 정식성립하여 광저우개발구와 깊숙히 융합된 관리체계를 시행함

○ 난샤 개발구는 단일 대면적 개발구에 대해 개발구관리위원회가 단일 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음

- 난샤 개발구는 국가급개발구이기는 하나 행정구역인 난샤구의 일부로서 난샤개발구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난샤개발구에 대한 개발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 난샤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는 고신개발구, 수출가공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난샤 개발구의 총괄관리체계 변천〉

- 1990년 국무원비준을 거쳐 광저우난샤경제기술개발구 설립
- 2001년 광저우시인민정부 비준을 거쳐 광저우난샤경제기술개발구건설지휘부(광저우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관) 설립
- 2008년 건설지휘부와 경제기술개발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저우난샤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광둥난샤수출가공구관리위원회와 부서 통합 운영, 이를 통해 광저우난샤경제기술개발구, 광저우난샤고신기술개발구, 광둥난샤수출가공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됨
- 2014년 국가급 난샤신구(자유무역구난샤면구) 설립, 7개 편구 관할

- 광저우난샤개발건설집단유한공사는 2009년 설립되어 2024년 기준 76억 위안 등록자본을 갖고 있음
- 선전 개발구는 광저우개발구나, 난샤개발구와 달리 각 개발구들이 상이한 계통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선전시 인민정부 차원에서 업무 협조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선전시 개발구는 광저우 개발구나 난샤 개발구처럼 경제기술개발구가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타 개발구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
 - 선전시 차원에서 각 개발구관리위원회 간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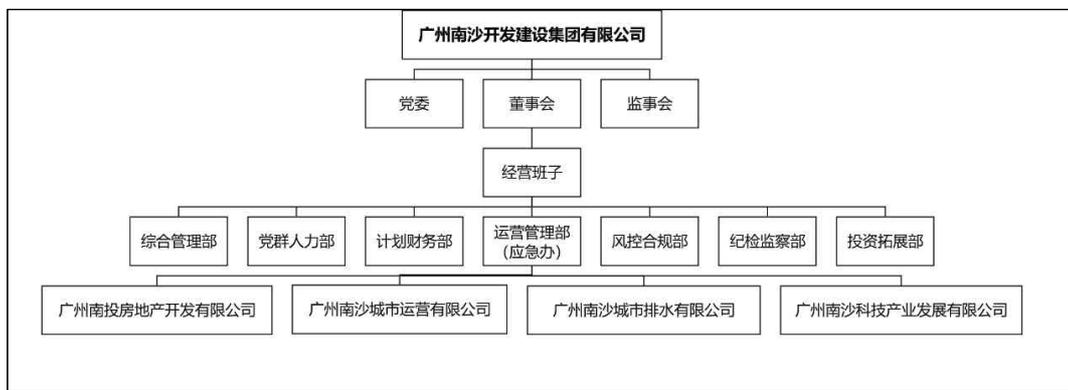
3. 비교의 시사점

- ① 베이밸리는 웨강아오대만구와 직접 비교보다는 그 구성 부분인 광저우 개발구, 난산 개발구, 선전 개발구와의 비교가 적실
 - 지역 산업구조: 1/2/3차산업 구성, 생산자서비스, 대외교역, 직업 구조 등
 - 산업 네트워크 구조: 신산업 네트워크, 지역기업 공급망, 산업연관(전국) 등

- ② 베이밸리의 국토 위상이나 산업 위상의 유사성 관점에서 보면, 선전시 개발구가 베이밸리와 가장 유사하므로 선전 개발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
 - 국토 위상 측면에서 베이밸리는 수도권외 배후지, 선전시는 홍콩외 배후지라는 성격에 유사성이 있음
 - 산업 위상 관점에서 베이밸리는 수도권에서 생산기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선전시도 홍콩의 생산기지로서 성장해 왔음
 - 다만, 선전시는 홍콩과 체제가 상이함으로 인해 성장한 제조업 기업들의 본사가 집적할 수 있었던 반면, 베이밸리는 본사의 소재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 전반적으로 베이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웨강아오대만구의 벤치마킹 대상은 선전 개발구 또는 선전시가 적실함

- ③ 한편 관리체계의 관점에서는 광저우 개발구가 베이밸리의 현실에 가장 유사하므로 관리체계 구상에 관하여는 광저우 개발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광저우난샤개발건설집단유한공사(이하 난샤개건)은 구 소속의 국유일급집단공사로서, 광저우난샤개발구관리위원회와 광동성재정청이 출자했음. 난샤개건은 난샤의 개혁발전에 전방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경제 발전에서 국유기업의 주력군 및 평형석 역할과 발휘하며 일류의 도시와 공업구개발운영종합서비스회사가 되고자 함

- 개발건설, 스마트 운영, 산업투자,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둘러싸고 남샤개건은 핵심경쟁우위가 있는 중대 산업 및 프로젝트 수행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발전과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종합적인 솔루션과 실시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 내부 조직으로는 종합관리부, 당군인력부, 계획재무부 등 7개 직능 부문과 광저우난토투부동산개발유한공사, 광저우난샤도시운영유한공사, 광저우난샤도시배수유한공사, 광저우난샤과기산업발전유한공사 등 자회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1〉 그림 34 광저우난샤개발건설성집단유한공사 내부조직
 자료: 광저우시난샤구 홈페이지(gzns.gov.cn)

- 광저우 개발구는 광저우개발구위원회의 상무부주임이 황푸구정부 구장(區長)을 겸임하고 있음

04

광둥성과 충남도 간 협력 강화 방안

- 지금까지 웨강아오대만구 및 그 소속 개발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황과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프로젝트와의 연계 방향을 모색했음
- 충남도는 현 단계에서 광둥성과의 협력 강화 방안으로 ①베이밸리 프로젝트를 매개로 한 교류 기회의 마련, ②적절한 상호교류거점의 지정, ③다양한 네트워크의 연결 등을 제안함

①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매개로 한 교류 기회의 마련

- 광둥성은 현재 충남도의 주요 자매결연 지역이나 교류 밀도는 일반 수준임
 - 2016년 6월 충남도와 광둥성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 그동안 교류는 상호방문 등 일반적인 인사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환황해 지역을 벗어나 화남 경제권에 위치하여 있어서 관심도와 교역 등에서 긴밀하지 않기 때문임
 - 한편 광둥성은 인구 1억1만명, 면적 178,000km² 등 규모에 있어서 충남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도 교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요인으로 작용
- 충남도의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충남도와 광둥성과의 교류·협력에서 새로운 연결고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적어도 환황해경제권에서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산만권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는 이는 웨강아오대만구와 같이 상이한 다수의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환황해권에서 충남도의 지위와 웨강아오대만구에서 광둥성의 지위는 유사한 측면이 있음. 즉 광둥성-홍콩의 관계는 충남-수도권의 관계와 유사하며 이

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배울것이 많이 있음을 의미

- 다만 충남도와 광동성의 지리적 규모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보다 파트너를 세심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추진 관련 교류·협력을 광동성과의 교류·협력의 실질적 콘텐츠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베이밸리는 현재 개발 초기단계이며 2050년을 계획년도로 설정하는 장기 프로젝트임. 웨강아오대만구 계획은 2019년에 시작되어 역시 같은 초기단계임
- 유사한 위상의 지역개발이 유사한 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양 측의 교류 내용은 매우 풍부하며, 소속 권역이 상이하므로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이 큼
- 베이밸리 관련 충남의 이니셔티브와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 관련 광동성의 이니셔티브를 고리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② 적절한 상호교류거점의 지정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밸리 프로젝트 규모 자체는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이나 광동성 전체 개발계획과 규모의 차이가 현격하여 대등성이 떨어짐

- 프로젝트가 포괄하는 인구, 지역, GRDP 등에서 베이밸리와 웨강아오대만구 또는 광동성은 차이가 커서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비현실적
- 따라서 구체적인 협력 파트너로는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 선전 개발구 등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이들 3개 개발구는 모두 광동성 관할이며,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음

○ 상호교류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교류 파트너 지역의 선정은 다를 수 있음

- **(국토 위상)** 초광역권 내 국토 위상의 관점에서 보면, 홍콩-심천 개발구-난샤 개발구, 광저우 개발구에 상응한 서울-베이밸리(경기도)-베이밸리(충남)의 구도와 대응관계가 있음. 이에 따르며 국토 위상은 충남과 난샤 개발구, 광저우 개발구가 유사함
- **(산업 위상)** 초광역권 내 산업 위상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생산기지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는 심천 개발구,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가 모두 제조업이 강한 지역임. 다만 연구개발 역량 측면에서 심천 개발구와 광저우 개발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난샤 개발구는 신흥 개발구로서 연구개발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다만, 베이밸리의 지향점이 제조업생산기지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제조 혁신을 추진하여 초일류 제조업생산기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관리체계)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3개 개발구 모두 연관성이 있고 참고할 가치가 있음. 광저우 개발구는 6개의 산재한 개별 개발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난샤 개발구는 대규모 단일 개발구를 단일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음. 선전 개발구는 7개의 개별 개발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고 시 또는 국무원 차원에서 조정·협조하는 관리체계임. 경기도와 남의 상생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광저우 개발구 모델이 가장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베이밸리의 상호교류거점은 추가 조사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충남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광둥성의 입장에서는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광둥성의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보다 중국측의 의향 및 의도를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

③ 다양한 네트워크의 연결

○ 베이밸리 프로젝트 관련 충청도와 광둥성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는 추진 기관 네트워크, 연구지원 네트워크, 공무원 네트워크 등이 있음

- 추진 기관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을 의미하며,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경우 충남·경기베이밸리추진협의체 내지 베이밸리개발청(장기) 등이 있고, 광둥성의 경우 광저우 개발구 관리위원회(광저우 개발구), 난샤개발구관리위원회, 난샤개발건설집단유한공사(난샤개발구), 선전시 인민정부(선전 개발구) 등이 있음. 수범사례 학습 등 상호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연구지원 네트워크는 베이밸리의 프로젝트의 경우 충남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이 있으며, 광둥성의 경우 광둥성사회과학원 등이 있음. 이들 학술연구기관은 각 개발구의 위상 정립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 자문 및 연구지원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음

- 공무원 네트워크는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다양한 교류·협력활동의 인적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음.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경우 충남도, 경기도 공무원, 광동성의 경우 광저우시, 선전시 등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대상임
- 각 개발 프로젝트 간 추진 진도 차이가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현재 구상 단계이며, 광저우 개발구, 난샤 개발구, 선전 개발구 등도 새로운 비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초기 단계임
 - 광저우개발구는 2020년 《신인프라 10조》를 공표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난샤개발구는 2022년 “4321사업체계”를 발표하는 추진하고 있으며, 선전 개발구는 <선전 건설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종합개혁 시행방안(2020~2025)>에 따라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광동성의 개발 프로젝트들은 베이밸리 프로젝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변화(새로운 추진 동력) 등이 예상 가능하므로 네트워크 연결의 시점과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현 단계 베이밸리 프로젝트 추진기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는 연구지원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베이밸리 프로젝트 추진 주체가 당분간 협의체 수준으로 운영되고 향후 충남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주체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충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에는 2-3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있는 충남연구원, 경기연구원, 광동성사회과학원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현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교류 네트워크이며, 연구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접점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문헌]

- 강문경, 2019, “중국 특별경제지역 제도 연구 - 신구,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중심으로”, Dong-A Journal of IBT Law. vol 26: 119-150, 동아대학교
- 김동수, 2020,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선전특구, CSF이슈분석(2020.1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민지, 2023,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를 사례로』, 국토연구원
- 김홍원, 2019, “중국 ‘웨강아오대만구’건설 추진과 전망”, KIEP기초자료(19-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코트라, 2018,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 글로벌 마켓 리포트(18-045), 코트라
- 국토연구원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2022, 『초광역권 개념의 부상 - 새로운 경제지리척도의 획정』, OECD지음, 국토연구원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충남연구원, 2023,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충청남도

[인터넷 사이트]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정부 홈페이지(<https://www.gz.gov.cn>)
-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인민정부 홈페이지(<https://www.sz.gov.cn>)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난샤구 인민정부 홈페이지(<https://www.gzns.gov.cn>)
- 중국 바이두 백과(<https://baike.baidu.com>)
- 중국 위키 백과(<https://zh.m.wikipedia.org>)
- 웨강아오대만구(홍콩) 홈페이지(<https://www.bayarea.gov.hk/>)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s://chungnam.go.kr>)